

두산중공업(주)

박용성 회장, IOC위원으로 선임

박 용성 회장이 지난 2월 7일(한국시간) 솔트레이크시티 그랜드 아메리카에서 개최된 제113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IOC위원으로 선임됐다.

두산중공업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대한올림픽위원회 고문을 겸임하는 등 재계와 체육계를 넘나들면서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박용성 회장이 IOC위원으로 새롭게 선임됨에 따라 한국은 김운용 대한체육회장과 이근희 삼성그룹 회장을 포함해 모두 3명의 IOC위원을 보유하게 되어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IOC위원을 확보하게 됐다.

박용성 회장은 국제경기단체장(IF:International Federation) 자격으로 IOC위원에 선임되었는데 국제유도연맹 회장으로 재직하는 2005년 10월까지 임기가 유지된다.

대한유도회 회장을 거쳐 1995년 일반 지바총회에서 유도종주국 일본의 가노 유키마스 일본유도연맹회장을 물리치고 IJF회장에 당선된 박용성 회장은 한국 스포츠 사상 첫 올림픽 종목의 국제경기연맹 회장에 오른 주인공으로서 그 동안 컬러유도복 도입과 세계선수권의 TV중계권료를 통한 재정확충 등 유도의 세계화에 힘써 왔다.

한국서부발전(주)

해외신용등급 "BBB" 획득

국서부발전주식회사(사장 홍문신)는 지난 2월 8일 세계 양대 신용평가기관

한인 S&P社로부터 "BBB"를 획득하였다. 이번에 획득한 신용등급은 한국전력과 동일한 신용등급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투자적격등급으로 인정되는 BBB보다 1단계 높은 수준이다.

S&P社는 서부발전이 시장점유율 및 비용부문에서 견실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우수한 수익성 및 현금흐름 등으로 양호한 신용지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서부발전은 이번 신용평가에서 전문경영인인 최고경영자의 경영철학을 중심으로 회사 전 직원의 역량결집과 발상의 전환 등 민간기업적인 경영방식의 도입, 한국 발전산업의 강한 펀더멘털, 6개 발전회사 중 상대적으로 시장에서의 유리한 위치를 점유한 점 등을 인정받아 이와 같은 양호한 등급을 획득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일환으로 2001년 4월 2일 한국전력공사에서 분리하여 설립된 서부발전에 대한 위와 같은 해외신용평가 결과는 전력산업 구조조정에 대해 해외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

는 것이며, 이로 인해 국내 발전회사의 해외시장에서의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6개 발전회사 중 최초로 해외신용평가등급을 획득한 서부발전은 자산규모 3조원으로 국내 30대기업그룹 수준이며, 2001년 1조 4696억원의 매출액과 1300억원으로 예상되는 당기순이익을 낸 최우량기업으로 2001년 10월 국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최우수신용등급 "AAA"를 획득한 바 있다.

해외신용등급 "BBB" 획득으로 국제적으로 우수성을 공인받은 서부발전은 신규 발전소 건설 등에 필요한 양질의 자금을 국제금융시장에서 유리하게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21세기 발전산업의 리더로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한국종합에너지(주)

복합화력발전소 종합 준공

발전설비 180만kW로
국내 최대 민간발전소 위상 제고

한국종합에너지는 2002년 2월 21일부로 발전사업을 영위한지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금년 1월 1일 15만kW의 추가 상업운전을 개시하게 됨에 따라 총 180만kW의 발전설비를 갖추게 됨으로써 국내 최대 민간발전소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이게 되었다.

1972년 2월에 국내 유일의 민간화력발전소로서 스팀터빈 32만kW로 상업운전을 개시한 한국종합에너지는 90년대 초반의 지속적인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정부의 전력안정화 대책에 부응하여 복합화력 개조 및 증설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1, 2차 복합화력 개조사업과 3, 4차 복합화력 증설사업으로 나누어 진행된 발전소 증설공사는 1994년에 시작되어 2001년에 마무리되었다.

1, 2차 복합화력 개조사업은 기존의 스팀 터빈 2기에 가스터빈 및 폐열회수보일러를 추가하여 복합화력으로 개조하는 사업으로 1997년 12월에 완공되었으며 3, 4차 복합화력 증설사업은 가스터빈을 신설하는 1단계 사업과 스팀터빈 및 폐열회수보일러를 설치하는 2단계 사업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고 복합화력 증설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4차 2단계 사업은 1997년에 착공되었는데 기초 공사 도중에 발생한 외환위기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2001년 12월 31일에 완공되어 성공리에 시운전을 끝마쳤다.

한국종합에너지의 발전설비용량 180만kW는 국내 민자발전소 중 최고이며 이는 우리 나라 전체 발전용량의 약 4%, 수도권 약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원자력 발전소 2호기 규모에 해당한다. 이러한 발전 규모는 국내 최

대 민전사업자로서 한국종합에너지의 위상을 확고하게 해 줄 것이며 30여년 동안 99.9%라는 놀라운 발전신뢰도를 기록해 온 발전소 운영 노하우가 접목되면 효율적인 발전소 운영이 가능해져 보다 건실한 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한전선(주)

지난 해 이익 대폭 신장

대한전선(대표: 이청용)의 지난해 이익이 대폭 신장됐다. 2000년에 영업이익 788억, 순이익 262억 원을 낸 반면, 지난해는 광통신과 초고압사업부문 등 핵심사업의 매출호조로 영업이익 1030억, 순이익이 505억 원으로 잠정 집계되어 전년에 비해 영업이익이 30.7%, 순이익은 92.7% 늘어나, 순이익은 전년의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매출은 전년과 비슷한 1조 2700여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한전선은 올해 20%의 높은 배당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최근 주가가 연일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업종자체가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었음에도 이 회사가 이처럼 큰 성과를 거둔 것은 적자사업부문을 과감히 매각 또는 분사하고 광통신과 초고압사업 등의 고수익사업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이다. 특히 국내시장이 정체되어

있고, 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에서 나온 결과여서 더욱 값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회사는 올해 매출 1조 3천억원, 영업이익 1천 1백억원, 경상이익 9백 억원을 각각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수익성이 큰 광통신과 초고압사업부문의 매출을 지난해 전체 매출비중 19%에서 올해는 25%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세계적인 광조사전문기관인 KMI에 따르면 올해 광통신 전체 세계시장 규모를 지난해와 비슷한 8290만 fkm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이 부문 수요가 대폭 늘어나기 시작해 2004년에는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장별로 볼 때 올해 미국 유럽시장은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중국 일본 인도시장 등은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대한전선과 계열사 옵토매직의 광섬유 제조공법인 VAD공법과 미국 코닝사의 OVD공법으로 제조가능한 Metro-Optimized Fiber의 수요가 지난해 '98년부터 크게 일어나고 있는 점은 대한전선과 옵토매직으로선 매우 반길 일이다.

따라서 현재 바닥권에 와 있다고 판단되는 광통신부문이 세계 경기회복과 함께 수요가 되살아난다면, 대량의 광섬유 생산체제를 갖춘 이 회사는 매

출과 이익부문에서 당초 목표보다 더욱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주)

"월드컵 통역·민박, 우리에게 맡겨라!"

지 구촌 최대의 축제인 월드컵대회를 1백여일 앞두고 월드컵 개최도시의 현대중공업이 월드컵 성공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울산에 본사를 둔 현대중공업(대표: 최길선)은 세계를 무대로 뛰는 대표기업답게 상주 외국인을 중심으로 월드컵 기간 중 외국인 맞이에 앞장서기로 했다.

현재 현대중공업에 상주 근무하는 외국인은 브라질, 미국, 영국, 노르웨이 등 40여개국 9백여명으로 '작은 지구촌'이라 할 수 있다.

선박이나 해상설비, 플랜트 등의 프로젝트를 맡주하고 공사기간 중 적게는 1년 많게는 5~6년을 이곳에 파견 근무하는 선주와 감독관, 선급 및 그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자원봉사를 희망한 외국인은 80여명

외국인 사택(Foreigners' Compound)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30명으로 구성된 다국적 축구 동호인클럽

인 [FCFC(Foreigners' Compound Football Club)]가 주축이 되어 갈수록 그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울산에서 예선전 또는 훈련캠프를 차리는 덴마크, 우루과이, 브라질, 터키, 스페인 출신 외국인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나이지리아 등 월드컵 참가 32개국이 거의 다 근무하고 있어, 이들을 통역과 관광안내 자원봉사로 활용하면 질 높은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원한 우승 후보'인 세계 최강 브라질을 비롯해 스페인, 터키 등 3개국팀이 現代重工業이 건설한 인근의 축구장에 훈련캠프를 차리게 됨에 따라 이들 외국인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월드컵 기간 동안 이들은 공항이나 시청 등 특정지역에 통역센터 부스를 설치하여 관광객들의 픽업부터 ATM(현금자동인출기) 이용, 환전, 쇼핑 및 숙박시설 안내, 문화유적지 안내, 축구장에 대한 정보제공 등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자원봉사를 신청한 영국 OSG社 도장(塗裝) 수석 감독관인 게리 더건(Gerry Duggan)씨(42세)는, "한국에 파견근무하는 동안 월드컵을 맞아 너무 기쁘고,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게 되어 더없이 영광"이라고 말했다.

영국 웨스트 세노(West Seno)프로젝트 수석자문인 토니 페이지(Tony

Page)씨(41세)도, "울산을 방문하는 세계 각국의 방문객들이 언어 때문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G산전(주)

해외 현지생산법인 흑자 경영

LG산전(대표:金正萬 www.lgis.co.kr) 해외 현지 생산법인인 중국 대련법인과 베트남 법인이 지난해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중국 대련법인의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27% 신장한 1464만불, 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15% 신장한 86만불을 기록했으며 베트남 법인의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30% 신장한 620만불, 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27% 신장한 50만불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97년 7월부터 전력시스템을 본격 생산하고 있는 LG산전 중국 대련법인은 '99년부터 흑자체제로 전환하여 매년 높은 신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26% 신장한 1850만불, 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5% 신장한 90만불을 예상하고 있다.

또한, 지난 '98년 9월부터 배전반 제품을 본격 생산하고 있는 LG산전 베트남 법인도 2000년부터 흑자체제로 전환하였으며 올해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61% 신장한 1000만불, 순이

익은 전년동기 대비 20% 신장한 60만 불을 예상하고 있다.

LG산전 해외사업부장 박동원 상무는 “중국은 북경올림픽 유치, 서부지역 대개발 추진, 전력현대화 추진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향후 5~6년까지는 매년 8~10%의 신장이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LG산전 대련 법인도 플랜트시장 집중공략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통해 2006년까지 매출액 4500만 불, 순이익 383만불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베트남 법인 또한 2006년까지 매출액 2500만불, 순이익 200만불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LG산전은 지난 해 수출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159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올해 수출예상 실적은 지난 해보다 24% 신장한 1970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회의 개최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김영대)는 2002년도 대국민 전기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지난 2월 4일 본사에서 전국사업소 지사장 및 지점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사업소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1년의 사업평가와 2002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2002년 전기안전관리 방안을 토의하는 한편, 대국민 전기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2001년 전기안전관리 우수사업소에 대한 포상도 있는데 지사 포상에서 영예의 1위는 강남 지사가, 2위는 강원지사, 3위는 경북지사, 지점포상에서는 성남지점, 구리지점, 서산지점이 우수사업소로 선정되어 각각 포상금과 함께 표창을 수상했다.

우수 사업소로 선정된 지사에서는 타 사업소에도 귀감이 되도록 각지사의 전기안전관리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한편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기술교육원을 3월 18일부터 전기안전기술자를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실시한다. 이번에 개설될 전기안전기술교육을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수변전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안전교육과 자가용전기설비 주요기기의 특성·설치시 주의사항·점검방법 사용방법 등의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실시된다.

또 전력산업현장의 예비인력인 대학과 대학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산업현장의 전력설비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이번 교육과정은 분야별로 수변전설비 과정, 전기설

비 기초실무과정, 전력기기운용실무과정, 산업협동과정, 보호계전실무과정, 산업협동과정, 보호계전실무과정, 전기화재 및 감전사고 발생과 대책과정, PLC제어 과정 등 7개 분야로 나눠 실시된다. 각 과정별 교육일수는 4박5일이며 (산업협동과정 2박 3일), 교육인원은 30명이다.

한전전력연구원

국내 최대용량의 DWDM광전송장치 개발

한전 전력연구원은 KAIST 정운철교수팀과 공동으로 국내 최초로 1.28테라bps(Tbps는 초당 1조 비트 전송을 의미) DWDM(Dense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파장분할 다중방식)광전송장치를 개발, 전송시험에 성공하였다.

DWDM은 다른 곳에서 온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하나의 광섬유에 함께 실는 기술로 국가 또는 도시 단위의 정보망 구축시 활용된다. 이 기술은 새로운 광케이블을 설치하지 않고도 기존 광통신망의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으므로 광케이블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최근 폭증하고 있는 인터넷 사용량을 무리 없이 수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술이다.

지난 '98년 1월부터 4년간에 걸친 연구 끝에 개발된 이번 DWDM 광전

송장치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실험에 성공했던 최대용량인 0.64 Tbps를 두 배나 증가시킨 것이다. 이는 가정에서 쓰는 ADSL 초고속인터넷 128만개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으며, 신문 천만페이지를 단 1초에 전송할 수 있는 획기적인 속도를 자랑한다.

개발 주역인 전력연구원 安性俊 박사는 “성공하기까지 다중화된 채널 수가 많고, 각 채널이 초고속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광섬유의 비선형 현상 제어와 광증폭기의 이득 평탄화 제어기술, 초고속 광 송수신기 구현 등 여러 가지 최첨단기술을 복합적으로 접목했다.”면서 “이번 테라비트급 광전송장치 개발은 국내 광통신망 용량 증대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국내외 DWDM 광전송장치 시장은 Nortel Networks, Lucent Technologies, Alcate, CIENA 등 선진국업체가 장악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일부 기업에서 수십Gbps급 장치를 개발했으나, 그 이상의 초고속장치는 아직 상용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통신분야의 세계적 시장분석업체인 KMI에 따르면 DWDM 광전송장치 시장은 지난 4년 동안 73%의 초고속 성장은 해왔으며 오는 2005년에는 전세계 시장 규모가 약 230억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기업들

도 올해 1500억원을, 2005년에는 약 5000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에 개발된 1.28Tbps급 DWDM 광전송장치는 기술 이전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은 물론 관련기술개발을 촉진시켜 국내 기술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LG전선(주)

올 매출 2조 목표

LG전선(대표 권문구 www.lgcable.co.kr)은 올해 매출 2조원, 영업이익 17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는 2002년 경영계획을 지난 2월 8일 발표했다.

이 같은 경영실적은 지난 해보다 매출은 5% 가량 소폭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18%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이 회사의 관계자는 “세계경제, 특히 미국경제 침체로 수주가 감소하는 등 작년 하반기에 광 사업이 위축된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하지만,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은 사상최고기록을 경신했고, 실적은 작년 4/4 분기에 저점을 통과해 광시장의 하반기 회복, 초고압 사업의 해외사업 호조 등에 힘입어 향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에 중국·인도·중동 등지에서

전력인프라 구축사업을 수주한 바 있는 이 회사의 초고압 전력선사업은 올해도 한전의 투자 확대와 연이은 해외 프로젝트 수주로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조만간 7~8백만불 규모의 공사 수주가 예상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 부문의 올해 매출은 작년보다 21.5% 대폭 상승한 2400억원으로 사상 최대의 실적이 예상되고 있으며, 통신케이블 부문은 이 회사 전체매출의 20%에 육박하는 3800억원이 예상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회사를 이끌어 가는 두 축으로 자리를 굳힐 전망이다.

작년에 7억불 수출탑을 수상한 LG전선은 미국경제의 더딘 회복, 환율변동, 엔저 등을 감안해 해외매출액의 신장보다는 ▲해외거점의 추가 확보 ▲고객 관계기반 강화를 통해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는 해외사업을 펼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객 DB를 구축, 고객 기여도별로 차별화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Relationship 마케팅’을 실시하여 고객중심의 프로세스로 전환하는 한편, 기존 10여 곳이던 북미·EU 등의 해외거점(법인, 지사, 사무소)을 15곳 이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LG전선의 올해 경영방침으로는 ▲Cash 經營(캐시 경영) ▲事業 世界化(사업 세계화)의 두 가지가 설정되었다. ▣